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북도정**

2004 여름호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즐거운 여름휴가는  
**경북**에서...



● ●  
그 곳에 가고 싶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산과 계곡, 그리고 푸른 동해바다의 여유로움을 벗삼아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또한 불교 · 유교 · 가야문화가 어우러져 있어 가는 곳마다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www.gbtour.net](http://www.gbtour.net)

# Contents

Summer

- 2** 국내외 기업 경북으로 몰려온다  
•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4월말 현재 2조원
- 4** 중소기업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 “알찬 결실”  
• 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탈피 중동·이집트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6** 이의근 도지사에게 들어본 외국기업 투자유치담  
• 지금의 투자유치 성과는 지난 10년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21세기 신경북비전의 결과입니다.
- 8** 세일즈경북 위한 방미  
• “Sales Gyeongsangbuk-Do”
- 10** 음성인식 인터넷 서비스 개시  
• 소리로 보는 세상, 음성지원정보시스템 ‘이지홈’ 개통
- 12** 생활 업그레이드, 웰빙!  
•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웰빙”, 새로운 생활문화로 정착
- 14** 도정이모저모  
•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종합2위” 차지  
• 「희망 2004 이웃돕기성금 전달식」 개최  
• 일자리창출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박물관 개관
- 18** 알아드립니다
- 19** 건강이야기 - 여름철 불청객, 급성 장염
- 20** 가 볼만 한 곳 - 주왕산 내원마을
- 22** 경북의 맛 - 청송 달기약수탕 백숙
- 24** 경북의 스타벤처기업 - (주)테크자인
- 26** 도정단신
- 27** 도의회소식

경북도정 2004 여름호(통권361호)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이의근 / 편집인 : 김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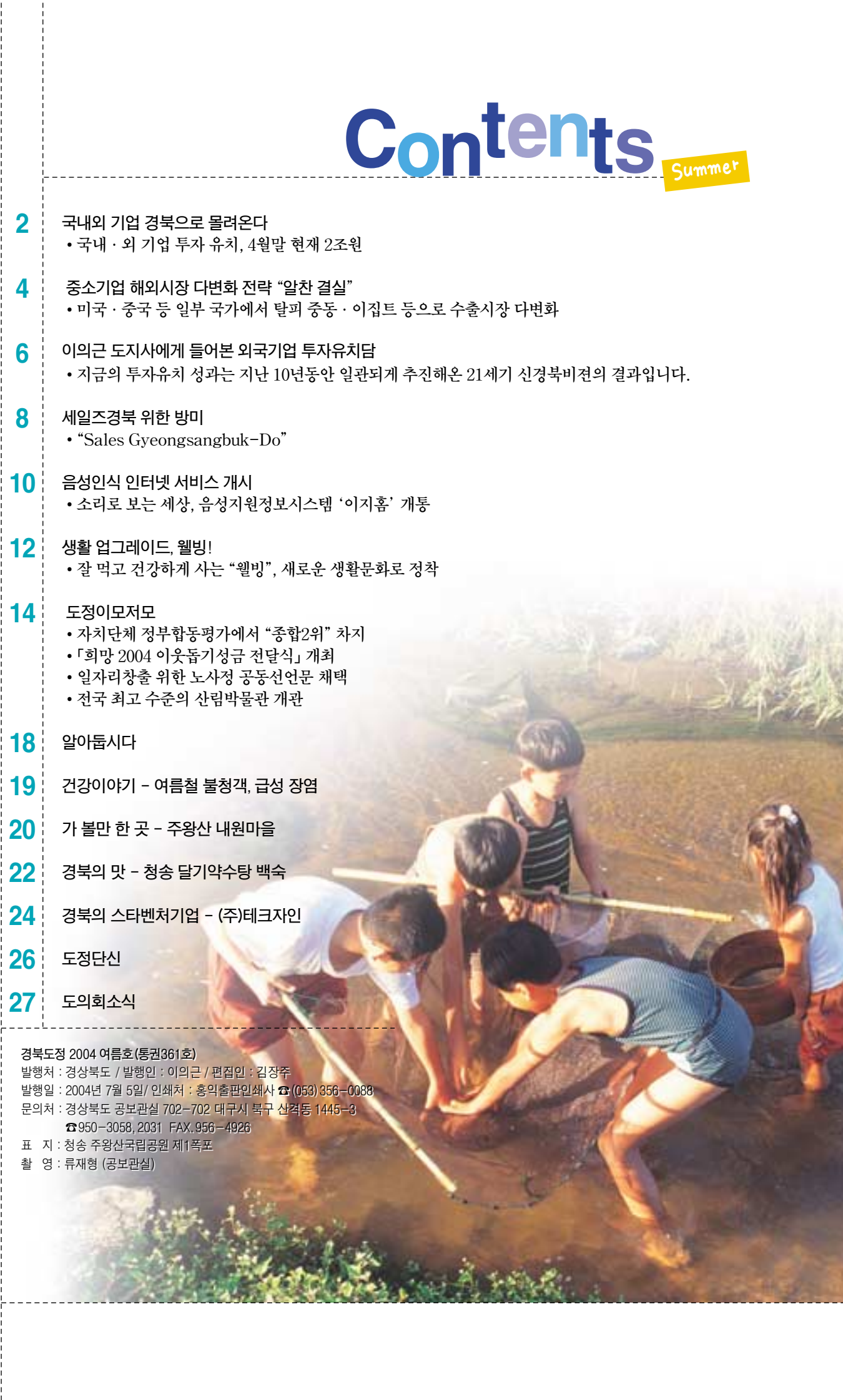
발행일 : 2004년 7월 5일 / 인쇄처 : 홍익출판인쇄사 ☎ (053) 356-0088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 950-3058, 2031 FAX. 956-4926

표 지 :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제1폭포

촬영 : 류재형 (공보관실)





##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4월말 현재 2조원

캐쉬 그랜트 등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과 발로 뛰는 투자유치활동이 성공 요인

경북지역에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들어 일본 도레이사, 독일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ZF사 등 외국 기업 4건에 3,000억 원, 국내 기업 8건에 1조5,000억 원 등 2004년 4월 현재 12건 1조8,000억 원이 지역내 투자가 확정되는 등 계속되는 투자상담과 기업방문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는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평소 기업체의 투자정보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현장 방문, 투자유치를 위한 CEO 접견 등 도지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며 발로 뛰는 투자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와 국내기업의 지역내 투자에 대해 투자비의 20%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Cash grant 제도 운영 등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남다른 노력의 결과이다.

올해 들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이익근 도지사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1월의 LG전자, LG필립스, 대우일렉트로닉스 방문, 2월 STX에너지(주) 열병합발전소 투자 조인식 체결, 3월 울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방문하여 투자 긍정검토 확인, 칠곡 대원GSI사 방문, 4월 한국




오웬스코닝사 방문 등 직접 방문한 업체가 벌써 10개사가 넘는다.

경상북도의 이러한 노력은 그대로 투자유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우리 도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만도 6개사에 이른다.

지난 2월 일본 도레이사 4억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독일 ZF사 3000만불 투자양해각서 체결, 일본 아사히글라스사 2억4천만불 투자양해각서 체결, 세계적인 산업용 자재 생산업체인 ITW사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STX에너지(주) 구미열병합발전소 2,000억원 투자결정, 영덕풍력발전(주) 풍력발전단지 585억원 투자결정, 대림산업(주)의 포항 신항만건설에 3,382억원 투자결정 등 SOC에 대한 민자유치가 확정되었으며, 경주 감포관광단지 조성, 봉화 청량산지구 관광시설개발사업, 경산 인터불고 골프장, 경주 태영골프장, 청도 이서골프장 등 Well-being 문화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관광·휴양시설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3일 LG전자가 구미국가산업단지 38,000평의 부지에 PDP A3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여 2005년까지 6,660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이후 PDP 시장의 급성장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3단계 투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방문한 현대중공업이 총 30만평의 공장을 포항신항만 배후공단에 설립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노키아·삼성전자 등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주)삼광이 경산 진량공단에 공장을 증설키로 하고 4월 21일 경상북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기업유치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확대 지정하여 98만평의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변화시키고, 투자유치가 가능한 곳이라면 국내는 물론 해외 그 어디라도 달려가는 자세로 투자유치에 매진하여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지역으로 유치하므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미국 ·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탈피 중동 · 이집트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경상북도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이 잇달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올 들어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월 동경선물용품박람회, 디트로이트자동차부품박람회를 비롯하여 3월 카이로국제종합박람회, 홍콩인테리어소품박람회 참가 등 총 4회에 걸쳐 21개 업체를 파견하여 635만3천불의 계약성적을 올린 바 있고, 4월에는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 중국 하남성무역전시회 등에도 참가했으며, 앞으로 9월의 러시아추계국제섬유및경공업박람회와 중국 심양장비제조업박람회, 10월의 상해소비재박람회 등에 50개 정도의 업체를 더 파견할 계획으로 있다.

지난 3월 참가한 ‘2004카이로국제종합박람회’에서는 공압피팅 및 호스생산업체인 「(주)지산에어테크」, 전자제품 생산업체 「(주)성도테크」, 액정TV를 생산하는 「동양전자(주)」, 배터리 제조업체 「레밍턴코리아」, 플라스틱 사출금형 생산업체 「몰텍」, 보일러 제조업체 「대림로얄보일러(주)」 등 6

개 지역업체를 파견하여 258만6천불의 계약과 2006만5천불의 상담 성과를 일구어 냈다.

특히, 영천의 (주)성도테크는 자체개발한 모터, 발전기 분야의 신개발 모델을 중동시장에 첫 출품하여 이집트의 버스제작회사인 HASHIM사와 현장에서 OEM방식의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3월1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04홍콩인터스토프섬유전시회’에 도내 섬유업체인 구미의 「세양산업(주)」, 「(주)승리」, 경산의 「건풍산업(주)」, 「(주)금보섬유」, 청도의 「(주)베가」 등 5개 업체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106만7천불의 계약과 274만7천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섬유제품을 특화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의 메카인 홍콩지역을 집중 공략 해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해 해외박람회에서는 불리한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앞세워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우리지역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중동지역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 내어 시장확대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7천만 인구나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중동지역 시장확대의 거점으로 삼는 것은 물론, 2000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이집트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우수한 국제전시박람회에 지역의 유망 우수중소기업 파견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중국 등 일부국가 중심의 시장집중에서 탈피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적극 모색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해외시장개척활동을 확대·시행키로 했다. <img alt="Blue arrow icon" data-bbox="690 585 710 600"/>





지금의 투자유치 성과는  
지난 10년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21세기 신경북비전의 결과입니다

###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제일도정에 대해 한마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4월말 현재 2조원의 투자유치로 우리 도가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민선자치를 시작할 때부터 ‘신경북비전’을 제시하고, 철저한 정보수집과 시장조사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그동안 경제도정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노력의 결과로써, 무엇보다 기업인과 근로자, 행정기관의 합심된 노력이 이같은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올 들어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투자유치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특히, 일본 도레이사와 독일 ZF렘페더사의 유치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도레이사는 다른 도와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리 도에 유치한 사례로 지난해 3월 일본 도쿄에 있는 도레이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도레이사의 명예사원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사카키바라 사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난해 8월 우리 도를 답방한 사카키바라 사장은 당초 투자액보다 많은 4억불 투자를 약속하며 명예사원증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ZF렘페더사는 당초 공장임대를 통한 투자형식을 고수해 외국법인이 직접 공장을 건립해야하는 외국인전용단지 관리규정 때문에 난항을 겪기

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3의 파트너와 함께 신규합작사인 ZF렘페더 코리아를 설립토록 본사를 설득하여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때 우리 도와 구미시의 공무원들이 보여준 노력과 정성으로 ZF렘페더사의 대표가 크게 감탄하여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 일본의 아사히글라스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기업의 유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내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먼저 지난해 3월 도레이사를 방문했을 때 아사히글라스가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여 투자를 위해 수익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8월, 12만평 부지 무상제공과 조세감면·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아사히글라스측의 실무자가 방문했을 때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공장설립 인·허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투자자의 마음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유리 생산업체인 아사히글라스는 구미공단의 LG필립스LCD 등 디스플레이 유리의 최대 수요처를 확보하게 되었고, 구미의 첨단 디스플레이 업체들 또한 첨단유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유치는 도내 성장유망업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이루고 미래형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경제도정 추진 계획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서울·대구 등지에서 투자유치설명회와 취업박람회, 벤처박람회 등 상품·문화·인재·정보 등 경북의 모든 자산에 대한 마케팅을 펼치는 '세일즈경북'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노사안정과 실업해소, 물가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 “Sales Gyeongsangbuk-Do”

## 기업현장과 투자가들을 찾아가는 의욕적인 활동으로 큰 성과

이의근 도지사는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북미지역 기업의 경북지역 투자 유치와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을 위해 직접 기업현장과 투자가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등 의욕적인 경제세일즈활동을 펼쳤다. 또한 하버드대학 경북포럼, 주정부 방문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다양하고 포괄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앞으로 미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북미지역 중소기업 시장개척활동



먼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북미지역 시장개척 활동을 펼친 경상북도 시장개척단이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시카고지역 등에서 수출 계약 1,121만6천불, 수출상담 6,881만불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이번 기간중 주목할 만한 성과는 영천지역 소재 기업체로서 정밀 기계부품, 자동차용 진공펌프 제조회사인 (주)성도테크가 미국의 최대 중·대형 트럭 및 버스엔진 제조회사인 International Truck & Engine사를 방문하여 기술력과 수출상담을 병행한 결과 그 자리에서 품질인정을 받고 향후 구매의사를 밝혔다.

미국 시카고소재 ITE사는 세계 44개국에 걸쳐 60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접착, 마감, 코팅분야의 세계 최일류 기업으로서 (주) 성도테크에 대한 홈페이지를 검토하고 그동안 경북도 관계자와의 수차례 의견 교환을 통하여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 세계적 다국적기업 ITW와 투자의향서 체결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5월 14일 미국 시카고에서 포춘지 선정 세계 189위의 다국적기업인 ITW(Illinois Tool Works Inc)를 방문, 투자의향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의근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북의 유리한 투자여건과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기업환경을 설명하고, 한국의 자동차부품(외장품) 생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ITW사를 설득, 데이비드 에릭슨(David Erickson) 부사장과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만간 경북을 방문, 구체적인 투자협약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ITW는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189위의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 44개국에 진출해 있는 연 매출액이 100억불이 넘는 회사로서 경북에 투자할 경우 자동차 부품관련업계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의근 도지사는 북미최대의 종합전시장인 맥코믹전시장(McCormick Place)을 방문하는 도중,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주도 스프링필드에서 달려온 일리노이주 팻 쿼인(Pat Quin) 부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과 양주·도간의 문화와 인적교류, 통상교류 지원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 「하버드대학 경북포럼」 초청, 주제강연



이의근 도지사는 5월 17일 세계 최고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의 엔칭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린 「하버드대학 경북포럼」행사에 초청되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참석한 청중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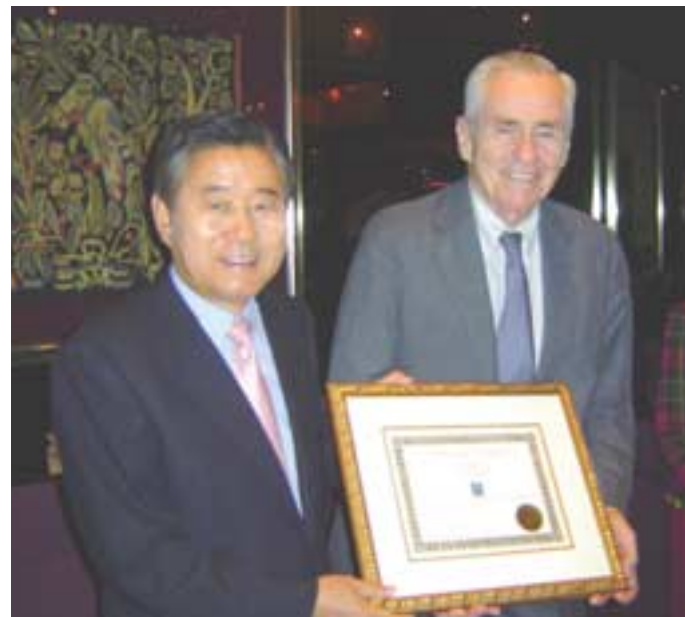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당위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지방의 대응전략 제시와 앞으로 경북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한 강연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강연에 앞서 이의근 도지사는 메사추세츠 주정부 청사에서 케리 힐리(Kerry Healey) 부지사와 면담하고 상호 공통점을 갖고 있는 IT산업분야와 대학간 인적교류 등을 제안하고, 힐리 부지사는 한국 경북의 기업가들이 메사추세츠를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카운터 파트너를 찾아주겠다고 협력을 약속하고 하반기에는 꼭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 뉴욕에서 현지기업 방문, 교류협력의향서 서명

이의근 도지사는 시카고와 보스톤에서 시장개척단과 합류하여 많은 성과를 올린데 이어 5월 18일 뉴욕에서 시장개척단과 재합류, 현지의 세계적인 의류디자인 전문업체인 바이 디자인 L.L.C사(대표 제이 리), 세계적인 수출입 회사인 와이텍스(Waitex)사 등과 섬유관련 교류협력의향서를 동시에 서명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편 5월 19일에는 미국내 대표적인 친한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인 그레그 前주한미국대사와 조찬을 함께 하면서 양국의 우호협력증진 방안과 미국기업의 한국투자 확대 등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소리로 보는 세상, 음성지원정보시스템 ‘이지홈’ 개통

### 장애인, 노인,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 위한 신기술 도입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음성으로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음성지원정보시스템인 ‘이지홈(Easyhome)’을 구축하였다.

‘이지홈’이란 행정자치부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6천만원을 투자, 음성인식, 음성합성, 전화 등 최신 음성복합정보기술을 도입한 기능형 보이스포탈정보시스템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지홈’의 주요내용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쉬운 홈페이지라는 뜻으로 “소리로 보는 세상”이란 큰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 소개, 민원안내, 문화관광, 복지정보 등 7개의 주요메뉴와 50여개의 서브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홈페이지의 전 내용을 음성합성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음성으로 들으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다. 특히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아바타(Easyman)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음성으로 컴퓨터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성인식 도구인 '음성지원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기존의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전화를 통하여 이지홈 홈페이지의 정보를 듣고, 홈페이지를 인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화를 이용하여 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 음성지원웹브라우저는 이지홈(Easyhome)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간단히 설치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음성인식자동교환시스템”에 전화(053-950-2800)를 걸면 도청내 직원의 이름이나 부서명 등을 인식하여 자동연결해주는 내외선 음성자동교환서비스도 실시하며, 비상시 직원의 집이나 휴대폰으로 긴급메세지를 전송하는 비상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다.

대중화된 무선이동통신망(핸드폰)을 통해 가입회원들에게 농사, 재해, 복지, 날씨정보 등을 단문이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보자들이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분야별로 관련사이트를 잘 분류하고 있으며,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지역과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 및 타 기관에 음성지원정보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이지홈”을 시·군, 읍·면·동의 PC를 메인페이지로 지정하여 농어촌 주민이 인터넷을 쉽게 사용하도록 하며, 시·군 마을정보화센터에 정보화지정석을 마련하여 장애인, 노인이 언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연락망과 음성자동교환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행정편의 제공과 재해예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청도군보건소 건강교실

##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웰빙”, 새로운 생활문화로 정착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높아

경상북도에도 웰빙(Well-being) 바람이 불고 있다.

웰빙이란 사전적 의미는 행복, 안녕, 복지, 복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요즘 말하는 웰빙은 현대의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 식품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웰빙족(Well being族)’은 이처럼 ‘잘 먹고 건강하게 살자’는 뜻의 웰빙을 생활코드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 동안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우선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부유층들만이 유기농산물, 요

가, 피트니스, 스파 등을 애용하며 웰빙붐을 일으켰지만, 요즘은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은 전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우리 도내 시·군에서도 읍·면 단위 보건소와 복지회관 등이 앞장서 명상, 요가, 다도, 선무도 등 건강에 유익한 각종 명상 관련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으며, 농민들도 기존 농작물 재배방식에서 탈피하여 고기능성을 갖춘 웰빙 농작물 생산을 위해 시설투자를 하는 등 농촌생활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각 시·군은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하여 웰빙문화타운과 웰빙산업 집적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농촌 생활문화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경산시보건소가 25종의 운동기구를 갖춘 건강검진센터를 마련하자 지난 해 무려 2만4천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했고, 청도군보건소에서 최근 개설한 요가교실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등 시·군 보건소마다 다양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칠곡군은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다이어트 쌀, 혈당 강하용 쌀, 감주 가공용 쌀, 유색미, 향미 등 웰빙족을 겨냥한 '고기능성 웰빙 쌀'을 생산하기 위한 시험재배에 들어갔으며, 오리·우렁이 등을 농사에 이용하는 친환경 농법 등 지역마다 고유한 특화품목으로 고소득이 가능한 웰빙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웰빙 특수를 흡수하기 위해 육체·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명상수련관은 물론 관련 연구기관까지 원스톱 연계되는 국제 규모의 명상웰빙문화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 웰빙산업을 선도하여 미래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g alt="Small blue icon of a hand holding a pen" data-bbox="748 638 771 651"/>

▼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중인 기능성 쌀



##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종합2위” 차지 재정인센티브로 상사업비 10억3천만원 받아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2003년도 자치단체합동평가에서 전자정부 실현 등 28개 평가시책 중 15개 분야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종합 2위의 쾌거를 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상사업비 10억3천2백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경상북도에 민원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주민 8천여명 중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원실 환경, 신속 정확성, 친절도 등 민원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가장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6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치단체합동평가는 2003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주요국정시책 중에서 주민복지, 지역경제부흥 등 8개 부문 28개 시책을 선정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img alt="blue arrow icon" data-bbox="288 425 308 437"/>

## 프랑스 일자스주 개발청장 일행 방문 알자스주에 경북유럽사무소 개설 등 교류증진 협의



이의근 도지사는 4월 9일 경상북도와 자매도시인 프랑스 알자스주 장 시몽 개발청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현재 알자스주 뮐루즈시에 건축 중인 「아시아-유럽비즈니스센터」 내에 경북유럽사무소 개설 문제 등 양 도-주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한·프랑스 고속협력 행사의 일환으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프랑스 산업박람회인 한·볼테크(HANBULTECH)


행사 참석과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알자스주 국제부장 장 미셀 스트라스 바흐와 경북명예자문관인 장홍 박사가 동행하였다. <img alt="blue arrow icon" data-bbox="248 858 268 870"/>



### 중국 북경시 과학기술위원회 방문 과학기술 교류·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중국 북경시 과학기술위원회 리우젠강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일행 7명이 4월 21일 경북도를 방문, 도청 제1회의실에서 중국 북경시와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과 이해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북기술이전센터」가 상호공동사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경기술교역촉진센터」를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경북기술이전센터의 주관자치단체인 경상북도를 방문하고 경북테크노파크와 국내 주요 과학기술 관련기관을 둘러보았다.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경상북도와 북경시 및 양 기관의 산하기구이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북경기술교역촉진센터와 경북기술이전센터의 과학기술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양 지역간의 과학기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희망 2004 이웃돕기성금 전달식」 개최 자원봉사센터 차량지원 등 100개 사업 지원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월 22일 도청 강당에서 이의근 도지사와 공동모금회 관계자, 도내 기관·단체·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04 이웃돕기성금 전달식」을 갖고, 지난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모금한 46억원 중 10억여원을 전달하였다.


성금 전달 대상은 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실행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등 각 분야별로 선정하였으며, 지원사업내용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방염커튼 설치, 장애인복지관 대형버스 지원, 자원봉사센터 차량지원 등 100개 사업이다.

또한 이날 전달식에는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 농협경북지역본부 등 우수기업 5개 업체 등 73명의 기업·단체·일반인·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도 전달하였다.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출범 각종 재해·재난 적극 대처 등 범도민 자원봉사운동 확산에 주력


경상북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월 4일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단법인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11월 10일 학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민간단체, 지역자원봉사센터 등 각계 대표 17명을 이사진으로 구성, 정관,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재해·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행사 지원, 자원봉사센터 인프라구축, 자원봉사관리자 양성, 활동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네트워크 형성, 자원봉사시책 입안 등 범도민 자원봉사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일자리창출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개최

경상북도는 5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노사정위원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 노사정을 대표하여 이의근 도지사, 한국노총경상북도지역본부 이철우 의장, 경북경영자총협회 김영석 회장이 서명하였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상호신뢰를 통한 노사화합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해외이전 자제 및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등 5개항이다. 

###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열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계기로 삼아

경상북도는 4월 20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장애인, 자원봉사자, 주민 등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6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주간으로 정하여 제9회 경상북도 장애인 맞선대회를 개최하고, 시·군별로 백일장 및 미술대회, 기념식과 병행하여 가요제, 축하공연 등을 개최하였다. 



###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박물관 개관 4-D입체영상실 등 첨단 영상장비 갖춰

경상북도에서는 유교문화의 관광중심권인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도산서원 자락에 자연과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산림사료 연구와 학습을 통해 산림문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과학박물관을 5월 25일 개관했다.

총공사비 194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 5,284㎡(1,598평) 규모로, 건물외관은 옆에 흐르는 낙동강의 뚝단배를 형상화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산림과학박물관으로의 특성을 살렸으며,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유물보관용 수장고, 지상 1층에는 로비, 제1·2전시실, 기획전시실, 사무실, 지상 2층에는 제3·4전시실, 4-D입체영상실, 체험공간, 특산품전시실, 휴게실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한편 앞으로 야생동물생태관찰원 15만평, 소득식물생태숲 15만평, 안동호반자연휴양림 15만평, 천연기념물 교육홍보관, 탐방로, 수중생태공원 등을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 일본 아사히글라스社, 경북도 방문 대규모 투자계획 공식발표 6월 8일 동경에서 투자협정 양해각서(MOU) 체결

세계 최고의 첨단유리제조업체인 일본의 아사히글라스(Asahi Glass Co.)사 디스플레이부문 와다 다카시 사장이 5월 24일 이의근 도지사를 예방하고 아사히글라스사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해 최종협의를 발표한데 이어, 6월 8일 동경에서 이의근 도지사와 와다 다카시 사장이 투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아사히글라스사는 구미 국가4단지내에 LCD유리 제조 공장설립을 위해 1단계로 올해 1억5천만불, 2005년에 1억5천만불, 그리고 향후 2008년까지 3억불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아사히글라스사는 평판유리(세계시장 점유율 15%), 자동차유리(30%), CRT유리(30%), PDP유리(90%) 등에서 세계시장 1위 업체로서 그룹전체 종업원 55,700명 그리고 연매출이 1조2950억엔이 넘는 세계적인 유리제조업체이다. ➡

## 전통문화 소재 '문화콘텐츠' 공모

경북도는 지역의 설화와 전설 등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거나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경관을 게임·영상 등의 첨단문화에 접목하는 「문화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게임시나리오, 영화시나리오, 학생영상작품 부문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한다.

### 게임시나리오 공모

게임시나리오는 4개 분야(롤플레이팅, 시뮬레이션, 액션, 어드벤처, 기타 게임극)에 걸쳐 최근 2년 이내에 개발되어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로서 게임으로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된 시나리오여야 하며, 신라 유교 가야문화권 등의 설화, 전설, 역사 등 경북문화를 소재로 해야 한다.

응모자격은 학력, 연령, 성별, 지역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단, 개인자격으로만 출품이 가능하다.

최우수 1명에게는 상금 1,000만원, 우수상(2명)은 각 500만원, 장려상(7명)은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 영화시나리오공모

극영화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시나리오 공모 또한 응모자격의 제한 없이 누구나 출품이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제작된 창작품으로 상업영화 제작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당선작을 실제 영화로 제작할 경우에는 주촬영지를 경북지역으로 하고, 세트장과 영화촬영 분량의 1/2이상을 경북지역에서 소화해야 한다.

최우수 1명에게는 상금 1,500만원, 우수상(2명)은 각 500만원, 장려상(7명)은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 학생영상작품공모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3개 분야에 걸쳐 전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만 2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제작된 순수창작물로서 주제와 제작형식은 자유이나,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촬영한 작품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작품은 편당 30분 이하 분량으로 제작해야 한다. (단, 다큐멘터리는 시간제한 없음)

대상 1명에게는 상금 500만원, 금상(1명) 300만원, 은상(3명) 각 200만원, 장려상(10명) 각 30만원이 주어진다.

### 공모 일정 (공통)

- 접수기간 : 2004. 8. 2(화) ~ 9. 15(수)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 제출처 : 705-70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3동 2139번지 계명대학교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별관 3층 CT사업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은 등기,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결과발표 : 2004. 9. 30(목), 인터넷 게재 및 개별 통보

< 문의 : 문화예술산업과 053-950-2608 >

## 청결한 환경 유지로 세균 감염 미리 예방

### 보관이 잘못된 음식은 즉시 처분해야

어느덧 여름이다.

외출하거나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계절, 그러나 더운 날씨로 인해 음식이 쉽게 상하게 되어 그러한 음식을 먹고 고열과 구토, 설사를 동반하여 복통을 일으키는 급성장염에 걸리기 쉬운 때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비슷한 음식을 가족 모두가 함께 먹어도 혼자서 장염에 걸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나 노약자는 좀더 청결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통 급성 염증성 장염에 감염되면 음식을 섭취 한 후 6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고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때에는 환자에게 끓여서 식힌 보리차 종류와 미음 정도만 먹게 하고, 해열제와 장염 치료제 등을 같이 쓰면 대부분 3~4일 내로 회복된다.

어린이가 장염에 걸렸을 경우, 끓여서 식힌 물과 이온음료 등을 먹이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급성 장염은 대부분 스스로 좋아지므로 장을 쉬게 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면 서서히 호전된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경우, 심한 설사와 구토로 쉽게 탈수 될 수 있으므로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 공급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우유나 과일, 주스, 고기 등은 완전 회복 될 때까지는 안 먹는 것이 좋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금식을 하고 수액 주사를 맞으면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과 떨어진 여행지에서 노약자에게 장염이 발생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단순한 설사와 구토만으로도 전신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분공급을 해드리면서 미음 등을 드시게 하는 것이 좋다.

심장이 약한 노인 분들은 설사와 구토가 심하다 하여 갑자기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신상태를 잘 관찰하여 편안하게 해야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가까운 내과, 혹은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장염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름철 급성 장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은 평소에 먹지 않던 술, 해산물, 고기 종류 등을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장이 예민한 사람은 오랜 시간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도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깨끗하고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찬 아이스크림이나 청결하지 못한 얼음 등은 피해야 하고, 보관이 잘못된 음식은 조금 아깝더라도 즉시 처분하는 것이 좋다. <img alt="blue arrow icon" data-bbox="678 863 698 876"/>



## 전기도 전화도 없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 빼어난 절경에 산책로 같이 편안한 등산로, 가족나들이 제격

그 곳에 마을이 있었다. 기괴한 바위들이 온통 산을 둘러싸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굽이치는 물길이 계곡을 돌아 폭포로 떨어지며 기암괴석들과 조화를 이루는 곳을 지나 정상을 향해 가다보니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 곳이 있었다.

해발 500여m, 방금 전까지 올라오던 산길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평평한 땅이 나타나며, 하늘이 넓게 보였다.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내원마을, 전기도 전화도 없다는 경북의 오지마을이다.

주왕산 국립공원 상의매표소에서 4km 남짓한 거리,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이다. 또한 산의 초입에서 보이는 기암괴석의 웅장함과는 달리 등산하기에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니어서 등산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동반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코스이다.

임진왜란 당시 피난민들이 마을을 일구어 400여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지만, 지금은 9가구 13명의 주민이 남아 있을 뿐이다. 불과 50여년전 6·25전쟁 이전에는 70여 가구가 살았을 정도로 번성하였지만 전쟁 이후 많은 이들이 떠났고, 1976년 주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자연공원법으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마을을 떠나는 이들은 더욱 늘어나 오늘날에 이르렀다.

마을 입구에서 처음 만나는 곳은 내원분교, 1970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70여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1992년 내원분교를 매입한 이상해(46)씨가 옛 산골학교의 분위기를 살린 카페로 개조하여 “내원산방”이라는 이름을 내걸어 주왕산을 찾는 이들에게 꽤 유명한 곳이 되었다.

내원산방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낮은 지붕을 엮고 안은 작은 집 몇 채가 보인다. 길을 따라 처음 만나는 집 앞에서 수염을 멋있게 기른 할아버지가 차 한잔을 권하며 불러 세운다. 주왕산 사슴할아버지로 유명한 권영도(70)씨, 내원동에 들어온



지가 14년, 주왕산에 터를 잡은 지는 31년이 된 주왕산 지킴이를 자처하는 분이다.


바로 옆으로 옥수수편빔을 만들어 등산객들에게 판매하는 예천할매집, 내원마을 반장집, 고사리 아지매집 등 저마다의 택호를 지닌 집들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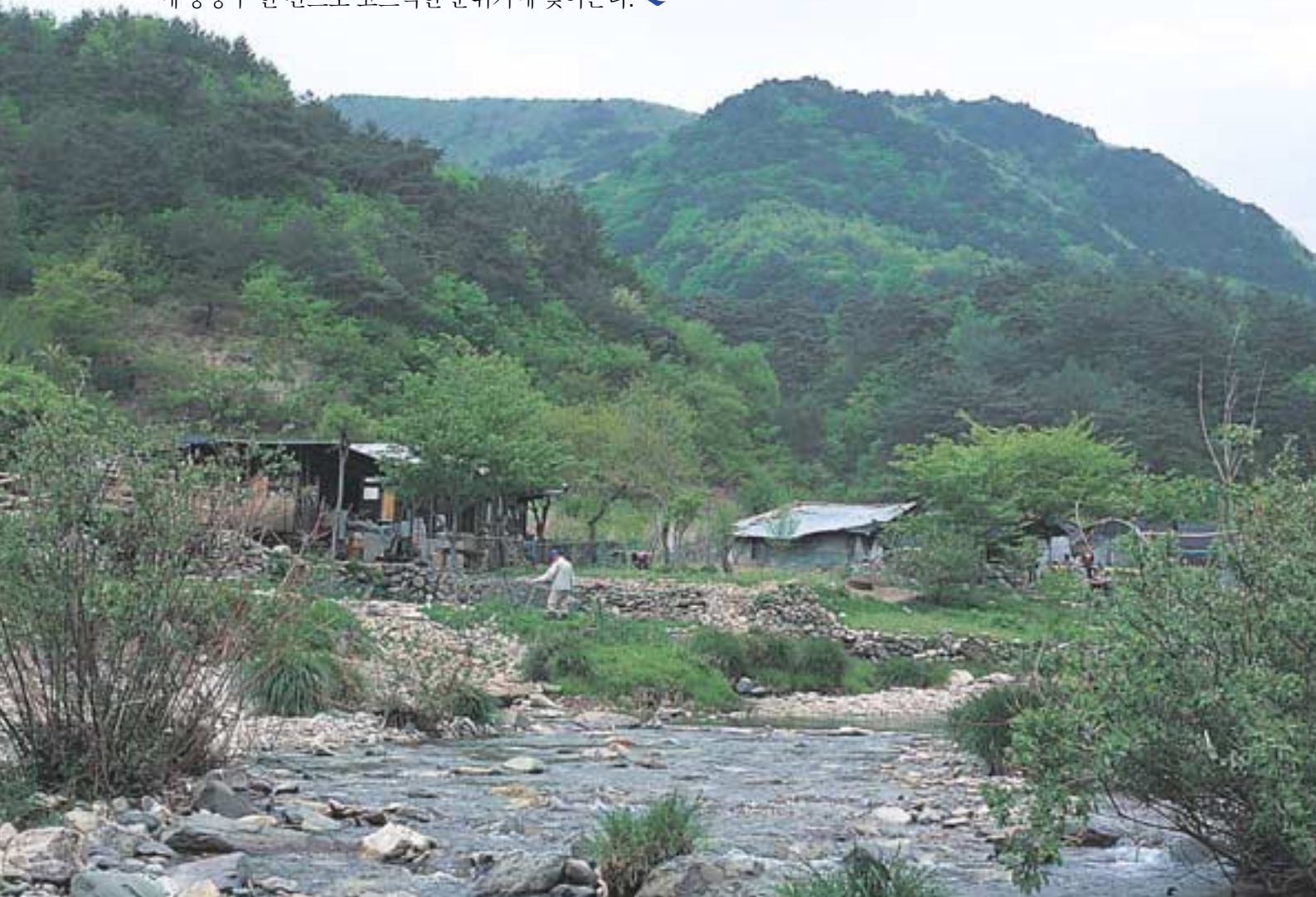
내원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방랑벽이 있다는 시인이 자신이 다녀본 전국 어디보다 좋은 곳이라 하여 눌러 앉기도 하고, 산골마을로 시집와서 정착한 경우, 도회지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주왕산을 찾았다가 마을에 자리를 잡기도 하는 등...

도시에서는 밤이라 부르지도 않을 오후 7시 무렵, 산골마을에서는 해가 떨어졌다.

전기도 전화도 없다고 했지만 발전기를 돌려 불을 켤 수 있는 집이 서너집, 전화를 달아놓은 집도 세 곳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전신주를 세우고 전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란다. 석 달 전에 산길을 따라 힘들게 끌어올린 전화선도 산짐승들에 의해 끊어지기 일쑤이다.

이나마도 지금처럼만 살 수 있으면 좋으려만 요즘은 공원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하는 것이 마을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있다. 이주에 찬성하는 주민도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이다 보니 이주를 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 산에서는 산나물을 뜯어 팔기도 하고, 오가는 등산객들에게 차 한잔이라도 팔면 생계가 가능했지만 걱정만 이주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마저도 막막해진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사람들의 고민도 산골에 내리는 어둠속에서는 가려지고 만다. 마을에서 하루를 묵을 사람이 아니라면 등산객은 모두 내려간 산골의 밤, 손님이랍시고 발전기 돌려 밝힌 작은 불빛 아래 산나물 안주에 동동주 한 잔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에 젖어본다. 





## 푸르스름한 빛깔의 약수 닭백숙, 위장병에 효과

철분 함량 많은 탄산수가 닭고기 지방을 제거하여 담백한 맛 일품

청송읍에서 동쪽으로 3km 거리에 있는 달기약수탕에는 하탕, 중탕, 상탕, 신탕을 비롯해 10여개의 약수터가 개발되어 있다. 인근 주왕산국립공원과 함께 청송군이 자랑하는 곳이다.

달기약수탕이라고도 불리는 달기약수탕은 조선 철종 때 금부도사를 지낸 권성하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안동에서 이곳 부곡리에 자리잡고 살면서 마을 사람들과 수로공사를 하던 중 바위틈에서 솟아오르는 약물을 발견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트림이 나고 속이 편안하여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애용하기 시작하면서 약수터로 개발되었으며, 옛 지명이 청송군 부내면 달기동이라 달기약수라 불리게 되었다 한다. 한편 약수가 솟아나는 소리가 고고고하는 닭의 소리 같다 하여 달기약수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그리고 달기약수탕의 특징은 아무리 가물어도 사계절 나오는 양이 일정하고 겨울에도 얼지 않으며 색깔과 냄새가 없다. 약수의 맛은 설탕을 제거한 사이다 맛으로, 탄산, 철 성분 등이 함유되어 위장병, 신경통, 빈혈 등에 효과가 있다하여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옛 이야기 때문일까? 지금 달기 약수터 주변에는 닭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다. 이 곳에는 달기약수로 푸욱 고운 약수백숙이 유명하다.

약수 백숙은 철분 함량이 많은 탄산수가 닭의 지방을 제거해주어 고기 맛이 담백하고 먹기에 좋으며 위에 부담을 덜어준다.

약수만으로도 좋은데 백숙에 인삼과 황기, 감초와 밤, 대추 녹두를 넣어 닭이 알맞게 익으면 닭은 건져내 접시에 담아내고 국물에 쌀을 넣고 죽을 쑤어 식사를 겸하게 해준다.

약수로 끓인 푸르스름한 빛깔의 닭백숙은 위장병에 좋고 몸의 기운을 돌아준다고 해서 요양하러 오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한 성공한 스타벤처

### LCD 백라이트용 확산 도광판 세계최초 개발 성공



대학 연구실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스타벤처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주)테크자인, 차세대 첨단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LCD(액정디스플레이, liquid crystal display)용 백라이트(Backlight)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2001년 법인 등록을 한 후 3년만인 올해의 매출 목표는 150억원, 내년에는 3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내 2,500평 부지에 1천평 규모의 시험생산공장을 완공하고, 지난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주)테크자인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 스타벤처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은 벤처의 기술력과 중견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주)삼립의 마케팅과 경영능력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이다.

LCD(박막액정표시장치) 백라이트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실험실 벤처로 출발한 테크자인이 산업자원부와 경북테크노파크의 도움으로 ‘2, 5인치 프론트 라이트 국내 최초개발’, ‘14인치 무인쇄 노트북용 백라이트 개발’, ‘2인치 휴대전화용 무인쇄 백라이트 개발’, ‘4인치 PDA용 백라이트 개발’, ‘사진 액자용 라이트 패널 개발’ 등 무려 19종의 각종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특허와 1개의 의장등록을 보유했지만 기술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업화 자금과 경영, 마케팅 능력이 필요한데 벤처기업으로서는 역부족이었던 것, 이때 (주)삼립산업은 위기의 테크자인에게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삼립산업 역시 테크자인과의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차세대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기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테크자인은 확산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도광판에 비하여 외관 품질이나 생산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휘도 밝기를 110%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확산 도광판의 양산에 성공하였다. 생산된 도광판은 현재 해외로 수출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주)테크자인이 양산을 시작한 확산 도광판은 정밀기술을 이용하여 수십 마이크로 크기의 미세 패턴들을 확산 방식(국내특허 제10-0371739호, 해외특허 출원중)으로 배열시킨 것으로서 확산 필름의 필요성을 제거시킨 것이다. 이는 생산성에 있어서 기존의 사출 도광판과 동일한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통상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도광판들의 개발이 성공한 경우에도 까다로운 생산공정조건으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로 크게 실용화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주)테크자인은 향후 생산예정인 모든 도광판 모델에 대하여 확산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확산 도광판 방식을 채택하여 전량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기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고가의 프리즘 필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즘 도광판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의 스타벤처를 넘어 세계의 스타기업이 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 


※ LCD용 백라이트(Backlight) : LCD의 액정은 자체만으로 빛을 내지 못하고 투과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므로 LCD 화면 전체를 균일한 밝기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광원 형태의 Backlight가 필수요소, Backlight는 램프와 도광판, 반사 필름, 확산 필름, 프리즘 필름 등으로 구성




### 「산과 숲, 나무에 얽힌 고향이야기」 책자 발간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의 오래된 나무, 산과 관련된 전설이나 설화 등 잊혀져가는 이야기들을 발굴, 금오산, 청량산을 비롯한 명산 70개소와 바위, 당산목 270개소 등 전체 340점에 대한 사진과 이야기를 곁들여 620여쪽의 분량으로 「산과 숲, 나무에 얽힌 고향 이야기」 책자를 발간하였다. 


### 경북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를 4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47개 직종 52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구미 금오공고 등 도내 7개 경기장에서 개최, 기계조립 직종에 김천 아포공고 이지원군 등 48명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해 총 187명의 선수가 입상하여, 4월 13일 구미기능대학 강당에서 기관단체장, 지도교사, 입상선수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갖고 입상자들을 표창했다. 


### 경북도, 지방세 도우미 책자 발간

경상북도는 지방세의 주요내용들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2004 지방세 도우미」 책자 530부를 발간,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내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장소에 비치하고, 대학교 및 도서관 등에도 배부하여 미래의 납세자들인 학생들도 편리하게 지방세의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외바이어초청 포도 상품화 교육 실시

경상북도에서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북지사와 협조하여 일본인 전문가 2명과 국내전문가 2명을 강사로 초빙하여 한·칠레 FTA체결로 직접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포도 주산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상품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제3회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 개최

경상북도는 4월 27일 농업인회관에서 이의근 도지사와 도의회 농수산위원, 농림부 관계자와 농수산물 생산자, 수출업체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 수출에 기여한 우수 생산자와 수출업체를 포상하는 「제3회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 태훈산업(주), (주)동우산업, (주)보성무역에 500만불탑을, (주)토로나코리아, 삼창무역(주), 양포식품(주)에 100만불탑을, 그리고 청림버섯작목반에 50만불탑을 시상하였다. 

### K2H 연수생 경북도 방문

국제화재단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 공무원들의 국내훈련과정인 K2H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국제교류담당 공무원 28명이 4월 26일 경북도를 방문, 도정 주요현황을 청취하고 종합민원실 등을 둘러보는 등 한국의 행정처리 과정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 도내 여성단체, 북한 룡천지역에 구호품 전달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경북도새살림봉사회, 경북회는 5월 7일 도청 전정에서는 북한 룡천 열차 폭발사고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모아온 성금으로 라면 310상자, 생수 350상자 등 구호품을 구입해 8톤 트럭 한 대 분량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및 집중폭설 피해지역 현지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3월 3·4일 이들동안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3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심사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진행하였다.

이어 3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폐회하였다. 





### 김정자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가 동해안 국도의 3배인 341km인데도 11년만에 완공된 것과는 달리 동해안 국도 7호선 확장사업은 15년째 50%대의 공정에 머물고 있는데 동해안 개발에 대한 향후 일정은, 경북도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 박승학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지난 2월 임시회 회기중에 도의회 전문위원 2명을 교육발령 함으로써 일부 상임위의 운영이 파행되었는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무계획적인 인사로 도지사의 사과를 요청, 의회내에 의원 입법 보좌기능을 가진 입법정책 담당관실을 설치할 의향, 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실을 의회 산하로 할 의향은,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등을 질문했다. 




### 정상진 의원 (농수산위원회)

동해안에 독도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경북도 브랜드인 실라리안 제품 등에 독도 로고를 만들어 사용할 의향은, 전체 인구의 약 20%가 노인인 경북 북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 증설이 시급, 도립 경도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을 경도대학내로 이전할 의향은, 경도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과 대책은 등에 관해 질문했다. 




### 김석호 의원 (산업관광위원회)

청년·서민층의 실업난과 농업인의 농가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어도 경북지역의 연계교통망이 미비하여 파급력이 떨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교통으로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 노선화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채희영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FTA 협상 체결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애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민족산업의 지킴이들인 우리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쌀 농업을 위시한 전국 생산량 1위 품목인 사과·포도·복숭아·자두 등의 보호대책과 회생 대책은, 시군 공무원의 구속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폭설피해지역 현지확인

비회기 중임에서 불구하고 3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최원병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은 도내 북부지역에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인 상주 함창읍, 문경 문경읍, 안동 북후면, 울진 등에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주민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미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위원회 별로 현지확인 과정을 거쳤으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직접 방문하여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4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폐회했다.

##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원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5월 3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5개 광역시·도의회 의원이 모인 가운데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 지역환경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교육문화회관 운동장에서 친선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5개 시·도의회 의원 공동명의로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천의지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

경상북도의회에서는 5월 11일 의장실에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의원 3명, 재무경험자 2명, 회계·세무사 4명 등 결산검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5월 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동안 2003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 산업관광위원회, 중국 하남성·호남성 초청 방문



산업관광위원회에서는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 자매도시인 중국 하남성(정주시)과 호남성(장사시, 장가계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양도·성간 우호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중국의 하남성과 호남성에서 경상북도의 회 산업관광위원들을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최원병 경상북도회의장을 비롯한 산업관광위원 7명과 직원 등 총 14명의 일행은 인민대표위원, 여행사 등 관광분야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호남성에서 주중한국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 '무역투자환경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을 펼쳤다. <img alt="blue arrow icon" data-bbox="640 875 660 890"/>



##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열어 2004년도경상북도및교육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근 도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 28일까지 이틀동안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이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국 소관에 대한 추경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일주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였으며, 6월 1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4년도경상북도및교육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폐회하였다.

한편 6월 5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영주 제2선거구 장찬식 의원은 의원선서와 함께 기획위원회에 배정되었다.



▲ 장찬식 의원

###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조5,686억2,900만원 편성


200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에서 제출한 내용중 안동독립기념관 건립 2억2,500만원 삭감, 지방자치경영대전참가 1억원 삭감, 청도용암온천 관광지조성사업 당초예산 5억1,000만원 중 2억1,000만원 삭감, 의성 탐산온천 관광지조성사업 4억5,000만원 중 1억5천만원 삭감, 헌정회 경북지회 창립지원 8천만원 삭감 등 총 5건에 7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돌리는 등 추경예산 규모는 2조5,686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 도정질문요지




### 정 보 호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공공기관의 지역유치를 위한 전담팀 부재와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전무,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호 경쟁적인 방식과 도내 시·군의 과당경쟁 등에 따른 향후 대책은, 고속철도의 개통 이후 기존 철도노선의 감축으로 중소도시 불편이 오히려 더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경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 김 정 기 의원 (농수산위원회)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이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공기업의 지방 분산 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경북도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과 선호되는 지역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도내 난시청 지역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이 원 만 의원 (산업관광위원회)

도내 11개의 특화 시험장 및 사업장을 구조조정을 통해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방안은, 경북도 공인 농산물 인증제도를 도입 의향, 2002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때 지역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부금인가 후원사 지정에 의한 대가인가,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급식품의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데 농림부 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획득한 축산물 사용을 요구할 의향 등을 질문했다. 




### 김 기 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독도 해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지정과 우리 국민들의 독도 상륙에 대한 허가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의향,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예산배정 기준, 지난해 발생한 태풍 '매미' 로 인한 도내소재 문화재의 보수·복구상황, 노인복지 예산의 증원에 대한 견해, 현재 경북도의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과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의 병상설치 실적과 치매노인 지원프로그램 실적 등에 관해 질문했다. 




### 장 대 진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도청이전 문제가 시·도 통합론과 맞물려 지리멸렬한 상황인데 도청이전은 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총청권과 접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발전 및 개발전략,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법인체 인사제도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시정할 용의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김 성 하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경북도·대구시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으로 도청 이전을 추진할 용의, 지하수 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 지하수관정에 대한 폐공처리율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이유와 현재의 폐공 처리현황 및 대책, 상수도 보급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은,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할 의향 등을 질문했다. 




## 개심사지 오층석탑

종 별 : 보물 제53호  
 지정일 : 1963. 1. 21  
 소재지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3-3

이 탑은 이중 기단위에 5층의 탑신부를 형성하고 그 정상에 상륜을 올려 놓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려시대 오층석탑이다. 비교적 그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상하 기단부와 1층 탑신에 새겨진 조각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1층 탑신의 남쪽 면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門모양의 새김 좌우에 칼을 권 인왕상이 새겨져 있다. 그 아래 상층기단 면석에는 탕주를 사이에 두고 한 면에 2구씩의 팔부신중이 새겨져 있고, 하층기단 면석에는 각각 3구씩의 안상을 조각하고 그 안에 십이지신상을 1구씩 양각하였다. 하층기단 면석에 십이지신상을 새긴 예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 탑의 십이지신상은 매우 뚜렷하게 남아있는 편이다. 이는 하층 기단이 땅속에 파묻혀 있어서 조각이 손상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탑에 장엄하게 조상을 새

기는 것은 9세기 이래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 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탑의 건립 연대와 주체에 관한 글이 상층기단 면석과 갑석의 아랫면을 빙 둘러가며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갑석의 아랫면이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글씨들이 꽤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140자 대부분을 판독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이 탑은 1010년(고려 현종 1) 2월 1일에 돌을 깎기 시작해서 다음해인 1011년 4월 초파일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 용문사 윤장대

종 별 : 보물 제684호  
 지정일 : 1980. 9. 16  
 소재지 :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용문사 대장전 내부의 불단 좌우에 높이 4.2m, 둘레 3.15m의 8각의 원당형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윤장대이다. 한 쌍의 윤장대는 동일한 수법으로 제작되었는데, 대장전 마루 밑에서 올라온 한 개의 원주 상부에 8각의 당우를 만들고 다출목의 다포와 8각 옥개를 조각하였다. 8각의 당우 내



부에는 서장(書藏)할 공간을 만들고 8면에 각각 문을 달았는데, 동쪽에는 빗살문을 서쪽에는 꽃살문을 조각하였다. 이 윤장대 안에 경전을 넣어두고 바깥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다.

1972년 12월 중수시 발견된 상량문에는 대정(大定) 17년(고려 명종 7)에 대장전을 건립하고 한 쌍의 윤장대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의 모습은 대장전을 중수한 1670년(현종 11)대에 이루어진 듯하다. 윤장대에 관한 몇몇 기록이나 파손된 예는 있지만 이처럼 완전하게 제자리에 보존된 예는 이 용문사의 윤장대가 유일하다. 또한 전경신앙(轉經信仰)의 예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이  
세상을 **확**  
바꿉니다!”

학술논문  
정책건의  
지역발전사항

# IDEA

## 경북 아이디어 대상 공모

도민들의 창의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하여 도정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기간 2004. 6. 1 ~ 10. 31

» 공모내용 2개부문(도민, 공무원)

• 정책건의 및 지역발전사항,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사항 등

» 응모자격 전 도민 및 도 소속 공무원

» 응모방법

•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된 응모서를 이용하거나 도청홈페이지 활용

• 우편, FAX,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 이용

• 주소 : (우)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경북 아이디어 대상 담당자 앞

• FAX : 053) 950-2302

• 도청 홈페이지 : [www.gyeongbuk.go.kr](http://www.gyeongbuk.go.kr) / (열린도청 공모과제)

» 시상내역 도민, 공무원 각 부분별 시상

• 대상(각 1명)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금상(각 2명)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각 2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상(각 3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심사 및 시상

• 관련 전문기관·부서 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의 결정

• 시상식 : 2004년 12월중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채택된 아이디어의 사용권리는 도에 귀속됨.

•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작이 없을 경우 포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054-950-2934)로 문의 바람